

22142043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9 May 2014 (morning)

Vendredi 9 mai 2014 (matin)

Viernes 9 de mayo de 2014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n analysis on one text only.
-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d'un seul texte.
- Vous n'êtes pas obligé(e) de répondre directement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souhaitez.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de un solo texto.
-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de orientación que se incluyen, pero puede utilizarlas si lo dese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중 **하나**를 골라 그 글의 맥락,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및 형식적·문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글을 쓰십시오.

본문 1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2시간 후 비닐 봉지를 사용할 것이며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내일 아침 샴푸를 마음껏 쓸 것이며...

5 그래서 당신이
“이 쓸모 없는 광고를 왜 하는 거야?
다 이거 내 세금으로 하는 걸 꺼 아냐?!!!”라고
생각할 줄 알면서도

10 그래도 당신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전기 스위치를 끈다면


15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이종사촌에 8촌과
아무 상관없더라도

20 몇 십 몇 백만 원하는 이 광고가
아깝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살아야 하는
당신의 아이가 살아야 하는
이 지구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으로 인해

25 지구온난화를 조금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구에
다른 사람의 실천을
바칩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 이 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까? 이 글의 전체 맥락, 독자, 언어,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쓰십시오.
- 이 글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십시오.

본문 2

[아빠! 어디가?] 성동일-김성주, 극과극의 육아일기를 보는 맛



일밤 - 아빠! 어디가?
 연출 김유곤, 강궁
 출연 김성주, 성동일, 이종혁, 윤민수, 송종국
 방송 2013 대한민국

- 5 김성주는 사람이 참 요령이 없다. 하필 운도 거의 따라주지 않는다. 냇가에서 설거지를 하려다 물에 빠뜨린 숟가락 하나에 허송세월하는 헛똑똑이. 김성주를 담당하는 자막은 언제나 둘 중 하나다. 한심해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성동일은 정말 뭐든지 쉽다. 뭐든지 설렁설렁인 그에게 운 또한 쉽사리 따라붙는다. 어찌면 제작진보다 한 수 위일 성동일에게 자막 또한 늘 감탄사투성이의 현사를 바친다.



- 10 그제 공부만 봤지 참 요령도 없고 운도 안 따르는 어려운 사람 김성주와 다소 학구적인 맛은 떨어져도 뭐든지 참 쉽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해결사 성동일.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했던가. 김성주는 위기에 봉착할 때면 늘 그의 구원처럼 성동일을 찾고, 귀찮아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해결 방안을 뚫어주는 것이 성동일이다. 이런 성동일과 김성주의 극과 극에 가까운 성격과 처신은 [아빠! 어디가?] 를 시청하는 또 다른 재미이다.
- 15 시냇물에 빠진 숟가락 하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김성주 앞을 마치 만화처럼 척하고 나타난 성동일에게 “어우. 숟가락 빠졌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징징대는 이 허당을 그는 획 하고 내버려둔 채 사라졌다. 다른 궁리는 도통 해보지 못하고 그저 맨살로 숟가락 파내기 삼매경에 빠져있던 김성주는 버림받고서도 종종 “아이. 이거 방법이 없나? 동일이 형은 할 수 있을 텐데.” 애절하게 그를 찾았다.
- 20 “너 물고기 잡냐.” 마을 회관을 둘러 한 바퀴 돌아오고도 여전히 꺽꺽대고 있는 김성주가 기가 차는 성동일이다. “아. 숟가락이 빠졌어요.” 징징대는 김성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나무를 집어들어 이 요령 부족의 먹물에게 하사하신다.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한참을 씨름하던 것이 무색하게 한큐에 모든 일을 끝내버리는 성동일의 요령에 김성주는 머쓱해졌다. “너는. 아우. 재를 어떡하지.”
- 25 통통대면서도 남아 요리조리 코치까지 해주던 성동일은 숟가락을 꺼내 든 동생에게 또 한 번의 돌팔매질을 했다. 그 기세에 놀라 쓰러지는 김성주도 웃기고 물장난에 담긴 성동일의 터프한 애정도 살가웠다. “아무튼 잘해~” 한마디 던지고 떠난 성동일의 목소리에 진한 안쓰러움이 담겨있었다.



30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헛똑똑이 김성주는 물론 해결사 성동일마저도 육아만큼은 초보 아빠에 가깝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를지라도 결국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서툰 아빠들의 어설픈 육아일기는 각기 다른 그림으로 조금씩 성숙해진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작은 감동과 따듯한 교훈이 된다. 그들도 우리만큼 서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

<http://doctorcall.tistory.com/1476> (2013)

- 이 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까? 이 글의 전체 맥락,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쓰십시오.
- 이 글에서 언어, 문체, 어조, 형식(사진 포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십시오.